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의 놀라운 잔치 [누가복음 14:15-24]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19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거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최고의 잔치를 열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저녁식사에 관한 묘사를 포함한 많은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비유를 포함해 모두 잔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잔치를 엮지다. 그는 손님들을 미리 초대하였고 이들 모두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 잔치는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그 분도 우리들을 그 분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그 분과 교재하게 하셨습니다. 그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결코 주리거나 목마를 일 없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 분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초대에 응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까? 잔치가 열렸을 때 잔치에 대한 모든 알림은 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17). 하지만 잔치가 시작된 후 여러 핑계를 둘러댁니다. 밭을 사서 그 밭에 검사해야겠다고 합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으니 신부에게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왜 핑계를 대십니까? 밭을 사기 전에 미리 검사할 수 없습니까? 다른 날 소를 시험할 순 없습니까? 신부를 잔치에 데려올 순 없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변명이 아닐뿐더러 초대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가 설립되었음을 알리는 정확한 묘사입니다. *"15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가복음 14:15).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잔치가 다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잔치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가장 진지하게 대해야 할 초대의 시간에 이 세상의 관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일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초대에 핑계를 둘러댁니다. 하나님께선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맡은 책임들을 진지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어떻습니까? 초대에 응해놓고 그 이후에 거절하는 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신명기 20:5-7, 24:5에는 의도적으로 거절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오직 군복무시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분의 손님이 되거나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대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24). 우리는 여전히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의 초대는 분명히 열려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응답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짜일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잔치로의 초대로 부를 때, 우리는 잔치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잔치를 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취소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날로 연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엔 손님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종을 거리로 보냈습니다. 거리로, 골목길로,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 세리들, 이방인들 드리고 여러분과 저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권하여 초대받았습니다. 눈 먼 사람은 이끌림 받아야하고 다리 저는 사람은 부축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 호화로운 연회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잔치는 그 분의 것입니다. 그 분께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지 수 천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되었습니다. 그 분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일을 우선순위로 둔 사람들을 위해 천국자리를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분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거리에서 시골에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난민들, 천민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있는 사람들입니까?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잔치를 거절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해있음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은 초대받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도 생명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긴급한 요구는 명백합니다. 그들을 강하게 잔치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두에게 명확합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영적 굶주림과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은 짧습니다. 초대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초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초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분께서는 그들을 동등하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 문을 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절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은 초대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초대받아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력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